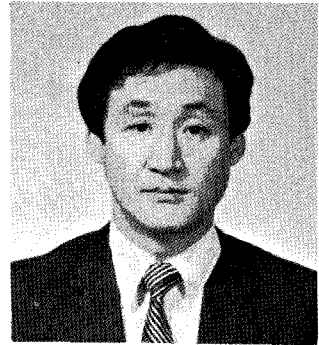


경쟁력 강화, 자체여건 조성 위해 수입자유화 시기 연장해야



김 호 섭
(천호부회장 영업이사)

양계산 물 수입자유화 시대의 문턱에서 우리업체 관련자라면 누구나 심한 우려를 버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우리 양계산업은 지난 15여년간 급진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음은 사실이나, 중요한 것은 물량적으로 크게 증가했을뿐 질적인 성장이 따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산업 스스로의 건실한 성장이 아닌 국가의 보호산업으로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의 덕택으로 그리고,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격증하는 대량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대량생산체제만을 갖추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정부의 보호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개척하고 경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 계획의 마지막 해인 명년부터 87년까지 수입자유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로 현재 단계적인 수입개방 정책을 펴고 있으며, 양계산물의 수입자유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농업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양계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임에 틀림없다. 궁하면 통한다고, 절박한 상황에 이르면 자구책이 마련될 것이므로 무조건 수입 개방부터 시키면 빠르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혹자의 주장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양계산업은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아직 국제시장경쟁에 나설 여건 조성이 전혀 되어있지 않으며,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확고한 기반도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게 허약한 양계산업이 아무런 준비대책도 없이 수입개방 정책에 따라 국제 시장에 노출되면 우리 양계산업은 경쟁력 향상은 고사하고, 약하나마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생산기반마저 일시에 허물어져 양계산업이 위기에 봉착될 가능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당국도 오랜동안 충분한 연구와 검토끝에 내린 정책이겠지만, 우리 축산부분만은 자체의 여건조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를 위해 수입자유화 시기를 조금만 더 연장해주었으면 한다.

정부 당국에 우리의 속사정을 충분히 알려져 정책수립이 합리적으로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서둘러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일 것이다. 언제까지나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보호정책 아래서 안이한 자세로 양계산업을 지탱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양계업계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70년대에 이룩된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이 정부의 수출주도정책의 실효임을 이미 경험한 바 있듯이, 수출산업의 활성화만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첩경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선 상황에 따라 양계산업이 빙산의 일각에도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최근 국제무역정세는 보호무역 장벽 때문에 마찰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음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근년의 경기침체로 국제무역환경이 나빠지자, 많은 국가들이 상호 물물교환형태의 구상무역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실제로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을 강요하는 국가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물건은 외국에 많이 팔려고 하면서, 외국 물건은 적게 수입하려는 이론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선, 당연히 정부도 수출증대란 목표달성을 위해선 어쩔 수없이 구상무역까지도 활발히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므로,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개방 정책은 어차피 불가피한 것임에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양계산물의 수입개방 시기를 좀 더 연장해 주도록 대정부 건의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양계산물의 수입이 개방되더라도 외국 산물과 정당하게 경쟁하여 우위를 확보하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자구책 강구만이 현실적으로 서둘러야 할 가장 중요하며 시급한 일이라 생각한다.

경영관리의 합리화, 사양관리의 과학화, 새로운 기술의 개발, 선진된 기술의 응용 등으로 양계산물의 생산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으며, 아울러 산물의 상품화와 유통개선 부분에도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대비책임을 강조하고 싶다.